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주 제:	“다시 볼 수있게...”	“연중 제 30 주일 “	2009년 10월 25일
복음 묵상:	[마르 10,46-52]	[예레 31,7-9]	[히브 5,1-6]

예수님이 눈먼 소경인 바르티매오를 치유하는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다. 세상을 세속의 눈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오늘 복음을 묵상 할 수 있다.

사실 깊이 묵상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신앙의 눈과 입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신앙의 눈이라는 묵상 주제보다, 소경 바르티매오의 모습이 더 마음 깊이 다가온다. 얼마나 간절했었을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현실과 더불어 그는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다. 그에게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향한 비전은 없었다.

절망, 비판, 낙담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만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을 뿐이다. 이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온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겨난 것이다. 삶의 목표가 설정되고, 인생 설계가 시작되는 고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주위의 부정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간절했던 그의 소망을 간략한 기도로 표현한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그의 외침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시끄럽다고 구박을 한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더 간절히 외친다. 이러한 그의 간청에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어,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치유의 행동을 하시고 치유를 하시는데, 여기서만큼은 바르티매오의 믿음만을 말씀하신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컸으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컸으면, 예수님께서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바르티매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비전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도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비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향한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 바르티매오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되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천 전 승진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점 및 기도 요청

- 주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10/16 부터 10/27 까지 여정으로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도합니다. 단장님이 안제신 동안에는 필립보 네리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상준 마이클 형제님 10/20 (화) 2 주간 여정으로 한국에 갑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히 다녀 오십시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이 좋지못해 앞으로 한달 정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해 주십시오.
- 조정자 율리아나 자매님은 10/2 일 부터 10/30 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점 일일 성가 피점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년 10월 31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성탄 성가 연습

- 11월 1일부터 교중 미사후 오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6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48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9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50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별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51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1분 명상

♡”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흐른다.” ♡

(류영국)



물은 합치려는 의지로 흐른다,
 돌부리에서, 가랑잎 틈새에서 스며 나온 물은
 흐르다가 바윗등이 줄기를 갈라놓으면
 옆으로 비껴서 만나고
 독을 쌓아 막으면 틈새로 새어 나와 다시 만난다,
 그렇게 만나고 합쳐서 강이 되어 흐르고
 강물은 다시 합쳐 바다에서 하나로 된다.

물소리는 서로가 그리워서 울부짖는 외침이다,
 그리움 끝에 만난 물줄기인지라 포구에 다 와서는
 웃음 짓는 만월을 띄우고 흐른다.

물의 여정은 하나로 되어 가는 과정이다,
 나뭇가지는 자라면서 갈라지지만 물은 갈수록 합쳐진다,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이다.

만남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만남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에페 6.23).”